

LUXURY

March 2012



11TH ANNIVERSARY

2012 S/S Handbag Special

역사상 가장 사랑받은 헤어스타일

럭셔리 시티 서울의 매력

11 Rooms with a View

Cartier

지금 주목받는 의자 디자이너 3 “대패와 톱 대신 컴퓨터 마우스를!”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구, 의자. 유명 디자이너의 빈티지 의자 대신 미래적 디자인의 의자를 찾고 있다면 주목하라. 과학과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이들의 작품은 “이런 의자도 있었어?” 하는 놀라움과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 훗날, 가구 디자인계의 역사와 신화가 될 이 시대 최고의 신진 작가를 만나는 시간.

요리스 라만

JORIS LAARMAN

“과학이 최고의 예술 작품을 만든다”

과학자와 디자이너, 엔지니어가 한자리에 모인다.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이 포함된 특수 소프트웨어를 가동하고 엉덩이 받침대와 등받이 부분의 대략적 모양, 견여야 하는 하중을 입력한다. 필요한 숫자와 정보를 모두 입력하면 목 받침대, 등받이 뒤쪽의 지지대, 엉덩이 받침대를 지탱하는 다리 부분의 ‘근육’ 모양이 서서히 나타난다. 결과는 놀랍다. 굽고 가는 여러 개의 ‘줄기’가 뼈와 핏줄처럼 뒤엉킨 모습. 그래서 이름도 ‘본 체어 Bone Chair’다. 한마디로 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공상과 학적 디자인이다. 이 디자인에는 독일 자동차 산업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활용됐다. 서스펜션을 중심으로 각 재료의 할당을 최적화하고 일련의 과정을 최소화해 무게감과 안정감을 동시에 구현하는 과정. 이를 거치면 군살을 완벽하게 뺀 날렵하면서도 강렬한 디자인을 얻을 수 있다.

네덜란드의 가구 디자이너 요리스 라만은 올해 33세 신예다. 2008년 네덜란드 에인트호번 아카데미 졸업과 동시에 부와 명성을 거머쥐었다. 하이라이트는 뉴욕현대미술관 모마MoMA에서 연 개인전. 세계 최고의 미술관은 영구 소장용으로 그의 작품을 구입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그에게 ‘올해의 혁신가’ 상(2011년)을 안겼고, 파리 퐁피두 센터와 비트라 미술관에서



요리스 라만 최근 국제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 작가는 의자의 ‘뼈대’와 ‘근육’을 고스란히 노출한 새로운 디자인으로 세계 미술 시장의 스타로 떠올랐다. 3D 모델링 프로그램과 자동차 산업에 쓰이는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해 만든 작품은 ‘디지털 공예’라 불리며 혁신성을 인정받고 있다. 대표작인 ‘본 체어’ 시리즈는 뉴욕현대미술관을 포함해 수많은 유명 미술관과 갤러리, 컬렉터가 구입했다.

도 작품을 구입했다. “자동차나 컴퓨터, 의자 같은 일상용품은 어느 정도 디자인이 결정되어 있다. 하지만 공업 디자인과 과학, 여기에 쓰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누구도 예상치 못한 도발적 디자인이 나온다. 질감도 형태도 전혀 다른...” 그러면서 그는 “자연적 성장을 거둬들이는 뼈나 나무의 비례를 모델로 삼는다. 유기적인 모습이 정말 아름답지 않나! 이런 비율과 구조를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생성해 의자 디자인에 활용한다. 정원을 산책하며 잎의 구조를 살피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져 감상적 시간을 보내지는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도 좋아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과학적 논리 logic를 살피는 데 관심이 많다”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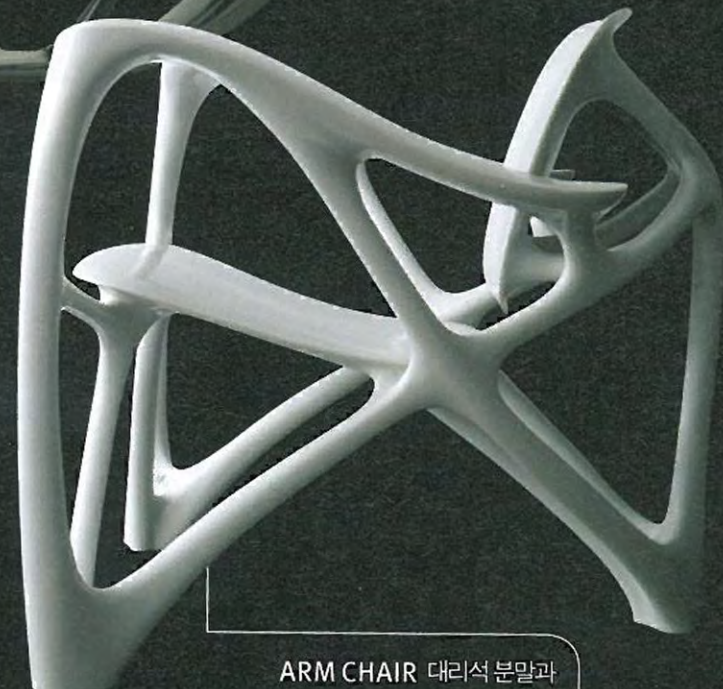
그에게 과학과 첨단 기술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손에 쥌 수 있는 최고의 무기다. 합성 비율과 속성 등을 다양하게 실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소재도 많아진다. ‘본 체어 Bone Chair’를 보자. 폴리우레탄과 천연수지를 사용해 누드 체어처럼 투명하다. 자체 발광하는 해면동물 같은 모습으로 두 재료를 합성하고 몸체를 떠받드는 다리의 굽기와 크기, 휨 정도를 컴퓨터로 산출해 개성과 안정감이 넘친다. 몸을 누이면 열이 전도돼 따뜻해지고 말랑말랑한 고무처럼 몸을 부드럽게 감싸는 듯한 효과도 있다. 작품을 유심히 보면 접합 자국 전혀 없이 모든 부분이 끊

기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지는데 이는 최첨단 기술을 이용, 커팅 작업을 한 번에 한 덕분이다. 이 공정에는 로봇까지 투입된다. “미래에는 어떤 방식으로 의자를 만들까 고민을 많이 한다. 그러다 보면 신소재와 신기술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된다. 단지 아름다운 디자인에는 관심이 없다. 과학적이며 구조적이고 복잡한 논리와 비율로 무장한 작품을 만드는 게 목표다. 내 작업의 핵심 키워드는 이렇다. 하이테크로 만든 아르누보 스타일!”

BRIDGE TABLE 알루미늄과
탄화텅스텐tungsten carbide을
이용한 작품으로 일체의 용접 없이
주물 틀에서 한 번에 떠 내 구석구석
놀랍도록 매끈하다. 가로 길이는
약 330cm에 달한다.



LEAF TABLE 나뭇잎의 수맥 구조를
수학적으로 계산해 디자인에 적용했다.
원형 알루미늄 판 아래로 열기설기 엮인
줄기가 보인다. 라만은 최근 테이블,
책받침대 등 다양한 가구를 디자인한다.



ARM CHAIR 대리석 분말과
레진으로 만들었다. 딱딱해 보이지만
등받이와 엉덩이 받침대 등 모든 부분에
인체공학적 설계를 적용해 편안하다.

PAPER STARLINGS 2010년 구겐하임 뮤지엄에서 선보인
설치 작업이다. 구름 떠 같은 종이비행기가 공중에서 부유하는 느낌.
요리스 라만은 담쟁이처럼 벽에 설치하는 라다에이터 등
다양한 설치미술도 선보이고 있다.



BORN CHAIR 뉴욕현대미술관에서 소장용
으로 구입한 요리스 라만의 대표작. 2006년 작
품으로 독일 자동차 산업에서 사용하는 소프트
웨어를 활용해 다리와 의자 받침대의 비율과 구
조를 계산했다. 재료는 알루미늄이다.

BONE CHAISE 폴리우레탄과 레진으로 만든
작품으로 사용자가 누워 있는 자세나 몸의 형태에
따라 조금씩 변형되어, 가장 편안한 상태가
만들어진다. 인체에 악한 열을 전달하기도 한다.

